

조선

현대미포조선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

2013. 8. 14

조선/기계
Analyst 박무현
02.3779-8967
bossniceshot@etrade.co.kr

가장 중요한 것은 '연비'에 대한 검증

상선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검증 대상은 바로 '연비'이다. 기존 선박을 모조리 교체해 버리는 Eco-ship demand는 연비에 대한 비교우위가 확연히 나타나야 한다. 현대미포조선의 연비에 대한 해운시장의 검증은 이미 끝났다. 게다가 Eco-ship 반복건조를 통해 Scorpio tankers가 인도 받아간 선박보다 연비가 더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검증되었고, Scorpio tankers 주가와 실적을 통해서도 검증되었다.

이 같은 연비에 대한 검증은 과거 상선사이클에서 선박 인도를 통해 생산성을 검증하던 것 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.

아직도 현대미포조선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기다려야 하고, 확인이 더 필요하다. 점이 남았다면, 더 확인하고 검증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 남아있는지 되묻고 싶다.

'연비'에 대한 검증이 끝난 조선소는 현대미포조선이 유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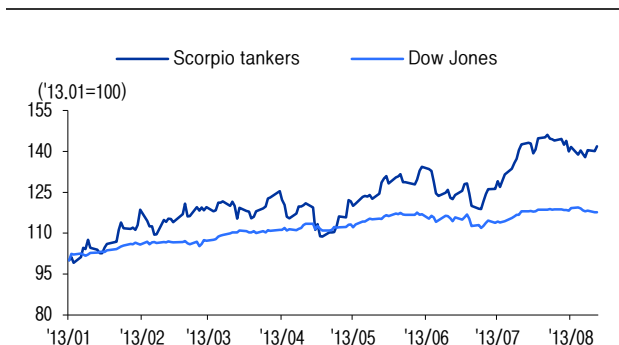
Scorpio tankers는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현대미포조선에서 인도 받은 5척의 MR 탱커의 연비 개선효과를 전 세계에 발표했다. 그리고 올해 1분기 Scorpio tankers는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, 2분기 실적 역시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다. 해운시황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Scorpio tankers는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Eco-ship을 발판으로 시장을 압도하는 실적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.

Scorpio tanker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현대미포조선에서 인도 받은 Eco-design이 적용된 PC탱커의 용선료는 120일간 \$19,000/day라고 밝혔다. 이는 시장 평균인 \$15,000/day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. 또한 최근 현대미포조선에서 인도 받은 Eco-ship의 운영비용은 \$5,945/day로 기존 선대의 \$8,241/day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.

이와 같이 전 세계 조선업체 중 고객으로 부터 '연비'개선 효과를 검증받은 조선업체는 아직까지 현대미포조선이 유일하다. 대형선 시장에서는 최근 인도된 Triple-E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Eco-design이 곧 검증될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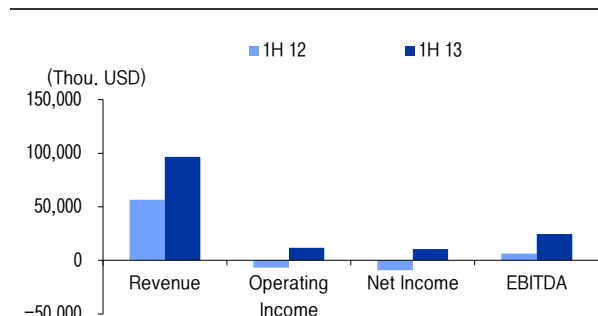
더 이상 기다리고 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. 해운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'연비'에 대한 검증이 끝난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할 때이다.

[그림1] Scorpio tankers' stock price above Dow Jones Index



자료: Bloomberg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[그림2] Scorpio tankers' statement of Profit or Loss



자료: Bloomberg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박무현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종목투자등급 guide line: 투자기간 6~12개월,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(Strong Buy/ Buy/ Marketperform/ Sell)

업종투자등급 guide line: 투자기간 6~12개월,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(Overweight/ Neutral/ Underweight)

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(Buy/ Hold/ Sell)에서 4단계 (Strong Buy/ Buy/ Marketperform/ Sell)로 변경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	적용기준(향후12개월)
Sector(업종)	Overweight (비중확대)	
	Neutral (중립)	
	Underweight (비중축소)	
Report(기업)	Strong Buy (강력매수)	절대수익률 기준 50% 이상 기대
	Buy (매수)	절대수익률 기준 15%~50% 기대
	Marketperform(시장수익률)	절대수익률 기준 -15%~15% 기대
	Sell(매도)	절대수익률 기준 -15% 이하 기대
	N.R.(Not Rated)	등급보류